

23.9.25.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

모두 발언

2023. 9. 25. (월) 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제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
참석해주신 각 부처 실·국장님들과
정책금융기관 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환경부와 특허청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협의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협의회의 역할과 영역이 확대되리라 기대하며
새롭게 참석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국가산업전략과 정책금융을 연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작년말 출범하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할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하였고,
총 91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벤처중견 육성, 기업경영 애로해소

오늘은 그간의 정책금융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프로세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II. 지난 회의 이후 정책금융 지원

지난 3차 회의(23.6.26)에서
향후 정책금융 대응계획*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 ①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 마련, ②첨단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지원,
③딥테크 등에 선제적 금융지원, ④한계기업 선제적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지난 8월 16일,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들과 함께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신시장에 진출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하여 해외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R&D와 설비투자를 촉진하며,
수출 우수기업의 무역금융 부담을 줄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4분기 이후로
수출이 본격 회복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개선되고,
수출 다변화와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도 기대합니다.

나머지 계획들도
5대 중점분야에 자금 공급과
혁신성장펀드 등의 적극적인 투자 운용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Ⅲ.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1. 정책금융지원 실적 점검

오늘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은
첫째, 금년도 정책금융지원 실적입니다.

금년 8월까지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신보)은
5대 중점전략분야에 총 73.8조원*을 공급하여
연간 목표치의 80.4%를 달성하는 등
차질없이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① 글로벌 초격차 : 12.3조원 ② 미래유망산업 : 15.7조원 ③ 산업구조 고도화 : 16.6조원
④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 10.7조원 ⑤ 기업경영 애로해소 : 18.5조원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와 함께,
고금리·고유가 기조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는 만큼,
남은 기간에도 기업들에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처들과 협의하여 세심하게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산업별로 우수한 기업을 선별하여
우대하여 지원하는 프로세스도
부처별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의 경우, 지난 8월 우수기업 선별을 완료하고
9월부터 자금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로 선발한 우수기업들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금융지원 효과 제고

둘째, 정책금융지원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으로 그동안 분절되었던 산업정책과 정책금융 공급간의 연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지속 가능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 공급과 재정이 긴밀히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산업정책과 수요를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금융기관들은 해당 예산을 기반으로 특별대출, 협약보증, 공동펀드 조성 등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더하여 정책금융기관 자체 여력을 해당 프로그램에 우선배분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 예 : 기업들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한 **이차보전 예산**(환경부)를 마련한 경우 **신·기보가 우선적으로 보증 지원**하여 대출금리를 인하(두 번의 금리인하 효과)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지원방안별 추진실적과 재정 펀드의 운영성과 등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추가 방안을 검토하여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 성장사다리펀드 개편 방안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할 사항은
성장사다리펀드 개편 방안입니다.

성장사다리펀드는 모험자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자금 공동출자(총 1.85조원)*로
'13.8월 출범한 민관합동 모펀드입니다.

* 산은(1.35조원), 기은(0.15조원), 은행권 청년창업재단(0.35조원)

투자기간 10년 동안('13.8~'23.8)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기업의 생애주기 쏠과정에서
총 4,190개 기업에 15.2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벤처시장 성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다양한 벤처펀드 출현을 촉진하는 등
모험자본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 국내 모험자본 시장(벤처투자) 규모는 '13년 10.3조원에서 '22년 51.2조원으로 성장

그러나, 많은 분야에서 모험자본 수요는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글로벌 산업·무역 경쟁 격화, 공급망 급변 등
세계 경제질서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새로운 투자자금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기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딥테크(Deep-Tech), 기후위기 대응 분야 등
민간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분야에서
모험자본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투자에서 회수되는 자금(매년 2,000억원 수준)을 바탕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모험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펀드를 개편하기로
출자 기관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처음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시된 10년 전과는 달리,
민간에서 다양한 PE, VC 등이 진출하여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성장사다리펀드는
시장에서 과소공급되는 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딥테크 분야와 기후대응 분야와 같이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기간이 길어
민간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와,
회수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컨더리 분야,
그리고 산업정책 등과 관련된 분야(매칭)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여러 운용사들이 존재하는 만큼,
운용사를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경쟁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매년 성과평가를 통해 운용보수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와 성과관리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개편된 성장사다리펀드는
향후 운용사 선정, 자펀드 결성 등을 통해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IV. 향후 정책금융 과제

마지막으로 향후 산업부처들과 협의하여 추진할 정책금융 과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우선, 기업금융 전반에 상황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들이 금융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우리 경제와 안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고 대규모의 자금 수요가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지원 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② 기술금융에 대한 제도개선은 하반기중에 조속히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난 10년전 기술신용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기술금융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 기술신용평가가 첨부된 대출 공급실적은 약 382.4조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약 35% 수준('22년말 잔액기준)

이를 통해, 담보나 보증이 없이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은행권의 여신관행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술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
평가지표의 한계, 투자보다는 대출 위주의 활용 등
여러 한계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기술기반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㉓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더 이상 장기적 과제나,
환경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탄소 구조의 산업전환이 지연될 경우,
당장 국제 무역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친환경·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을 위해
정책금융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V. 맺음말

첨단산업 경쟁 심화, 무역 대변환, 기후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근본적이고 범국가적인 문제는
금융위와 산업담당부처 그리고 정책금융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범부처간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로
더욱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